

담대한 자,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,
선생이다

작성일: 2011. 5. 6. (금)

작성자: 주성화 (부산 대연주영광교회)

[천국성령운동 2주년 집회 때

저의 영혼이 너무 담대하고 싶어 했고
하나님께 담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

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저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.

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
담대함을 받고 싶다고 기도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너는 강하고 담대하라.

내가 너와 함께하리라.

여호수아가 그 담대의 영웅이 되었던 것은

오직 여호와의 힘,

여호와의 그 능력이 임하였음이라.

나의 능력 받은 자, 신이라 하였거늘

섭리 모두는 나의 능력, 나의 권능, 여호와의 신,

곧 성령을 받을지이다.

구하는 자마다 얻고자 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

오직 나 예수의 마음이 열려

너희 각자에게 그 뜨거움이 들어가리라.

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

지구촌 한 마을에서 작게 시작한 역사,

오직 여호와의 명철과 지혜의 신이 임하여

나 그곳에 역사의 촛대를 깊게, 깊게 세웠노라.

가장 나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에게

강하고 담대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힘,

그것은 오직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

나를 붙잡고 애원했던 그 사랑의 힘임을

나 예수가 이 순간 강력하게 말하노라.

가장 위엄 있고 장엄하게

내가 웅장하게 계획한 이 역사는

가장 작은 자 통해 역사하는 그 힘을

나 마음껏 퍼붓고 퍼부음을 이 순간 말하고 싶구나.

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,

나약함 속에서 강인함을...

오직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.

내 사랑들.

나 이 순간 그의 분신된 너희 한 명, 한 명에게

나의 신을 마음껏 퍼 부으리니

너희는 구하는 대로 각자 가져가리라.

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성령의 역사

애타고 애가 탄 이 한스러운 역사 위에

그 사랑의 신을 너희 선생에게 퍼부어

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자 한 명을

촛대로 꽃았느니라.

이 사랑스런 나의 신부는

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

오직 나 예수의 생각을 담았으며

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

철인 같은 그 강인한 정신과 마음속에서

항상 여호와와 예수를 사랑하며

절대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 절대적 사랑을

단 한 순간도 놓지 않은

진정 이 시대 나의 사랑

나의 최고의 촛대임을

나 너희에게 진정 말하고 싶구나.

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

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

여호와가 어떻게 이 역사를 운영하는지

너희는 진정 이 촛대를 자세히 보고

그 촛대의 흐름에 따라

너희 몸과 마음과 정신을

온전하게 무장하고 무장하여라.

보고도 듣고도 행치 못한 자,

멈춰 있는 자 죽은 자라 했거늘

나 그 위에 역사할 수 없다고 하였거늘

너희 진정 산 자들아, 산 자들아!

나의 시대 외친

그 촛대의 중심자의 정신 따라 살아가라.

진정, 진정 행함의 축복을 받을지이다.

그렇게 모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

나 예수와 여호와의 눈이 그를 떠난 적이 없었고
그 또한 그 모진 세월 속에서
단 한순간도 배신이라는 것, 나 본 적 없노라.
나 그 위에 진정한 사랑을 퍼부으리니
너희 또한 그 사랑의 분신들이 되어
진정 깊이깊이 뿌리를 내려 외치길
간절히 간절히 나 예수가 말하노라.
나 이 시대를 잡고 저 세계를 잡아
정녕코 정녕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.

나 단 한 명 나의 마음 받은 자
그 한 명으로 지금껏 역사
다시 또 다시 시작한 것처럼
나 정녕코 그 확고한 믿음과 굳건한 정신 위에
역사의 발판을 삼아
나 정녕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.

이 진리 앞에 두려운 자 누구며
이 사랑 앞에 자신을 감출 자, 그 누구냐.
나, 담대한 자
이 시대 나의 신을 받은 그 담대한 자 위에
더더욱 더더욱 크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아름답게
역사 펼 것이다
나 예수의 손을 잡자.
나 예수의 손을 붙잡아
나 예수의 그 사랑을 붙잡자.

그 선생의 정신 따라
진실로 행하는 너희 각자에게
나 예수가 담대하고 진정 온전한
신의 능력을 더하리니
받아라! 받아라! 받아라!
불꽃이 이 세계를 사르고
저 영계까지 운명을 바꾸고 있으니
너희 진정으로
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 함께 태우자꾸나.

너희 모든 죄를 청산하고
너희 생각의 무지를 태우고
진정 너의 것, 너의 자존심, 너의 사상,
너를 중심한 진정 쓰레기같이 버려야 할
너의 것을 다 정리하며 집어 던지며
오직 따뜻한 사랑의 신을 받아

나와 온전히 일체되길
나 예수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노라.

진정한 역사 위에 나 예수가 너희 모두에게
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리니
너희 각자 모두 받아 갈지어다.
사랑한다.
담대의 신 나 예수가 섭리사 신부에게 말했노라.
사랑해.